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6월 11일(주일) 제1446호



사진은 지난해 카운트다운.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7월 15일과 16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이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막 오른다. 7월 15일(토)과 16일(주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다.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은 이 시대 청년들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마음에 되새기는 축복의 장(場)이다. 올해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에서는 7월 15일(토)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The Whole Church’,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The Whole Gospel’,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The Whole World’, 16일(주일) 이재훈 담임 목사 ‘Come to worship’,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Go to the nations’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스톤게이트(심형진 목사), 홀리웨이브(지구촌교회 젊은이예배), 온누리교회 홀리임팩트팀

이 찬양으로 섬긴다.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공동체 전자주보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배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6월 마지막 주부터는 전교인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타 교회 성도들도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6월 21~23일 10시~13시, 각 캠퍼스 본당 및 서빙고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광야의 힘’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21과 22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하고, 23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아직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서둘러야 한다. 선착순 마감하기 때문이다. 6월 10~11일 주일예배, 14일(수) 수요일 오전여성예배 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2023 마리아행전에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이한영 부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3215-3667, 3201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 시작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여름캠프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시작됐다. 예수님의꿈아이(영유아부, 유치부)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과 과워웨이브(중고등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외부 및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지난 5월 27일(토)부터 6월 10일(토)까지는 2023 차세대 어드벤처 교사강습회가 이어졌다.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2023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6월 16일(금) 한강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9일(일) 부천 희락공동체가 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올해 상반기 온누리공동체는 1월 7~8일, 14~15일 선교헌금작정, 1월 30일~2월 3일 목회사관학교, 3월 1일 순장영성수련회, 4월 3~7일 고난주간예배, 5월 8일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5월 17~19일 회복축제를 개최했다. 6월 21~23일에는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2023년 상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방법)	시간
6월 16일(금)	한강	두란노홀	18:00
6월 17일(토)	서빙고	철원 제일교회	08:00
6월 20일(화)	OCC	두란노홀	18:00
6월 20일(화)	서대문	한동홀	18:00
6월 20일(화)	여의도	비전홀	18:00
6월 20일(화)	노원	시온홀	18:00
6월 22일(목)	고양은평	두란노홀	18:00
6월 22일(목)	동대문중앙	한동홀	18:00
6월 23일(금)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6월 23일(금)	관악금천	한동홀	18:00
6월 23일(금)	강촌	비전홀	18:00
6월 23일(금)	동작	시온홀	18:00
6월 24일(토)	일산파주	일산비전센터	18:00
6월 24일(토)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2:30
6월 25일(일)	강서	외부	07:00
6월 27일(화)	신용산	두란노홀	18:00
6월 27일(화)	성동광진	한동홀	18:00
6월 27일(화)	마포	비전홀	18:00
6월 27일(화)	이수	시온홀	18:00
6월 29일(목)	천양사역	두란노홀	18:00
6월 29일(목)	성북	한동홀	18:00
6월 30일(금)	이촌	두란노홀	18:00
6월 30일(금)	광명	한동홀	18:00
6월 30일(금)	양천	비전홀	18:00
6월 30일(금)	용산	시온홀	18:00
7월 4일(화)	김포	한동홀	18:00
7월 6일(목)	가정사역	한동홀	18:00
7월 7일(금)	중종로	두란노홀	18:00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16일(금)	서초C	온유홀	20:00
6월 20일(화)	송파B	화평홀	19:30
6월 20일(화)	강남A	온유홀	20:00
6월 20일(화)	강남E	드림홀	19:30
6월 22일(목)	서초B	드림홀	19:30
6월 23일(금)	분당B	화평홀	18:30
6월 23일(금)	강남D	온유홀	20:00
6월 23일(금)	경기A	드림홀	20:00
6월 24일(토)	서초D	화평홀	18:00
6월 24일(토)	강남C	드림홀	18:00
6월 25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15:30
6월 27일(화)	강남B	화평홀	19:30
6월 27일(화)	분당A	온유홀	19:30
6월 27일(화)	양재B	드림홀	19:30
6월 29일(목)	과천의왕	화평홀	19:30
6월 29일(목)	양재A	드림홀	19:30
6월 30일(금)	서초A	화평홀	19:30
6월 30일(금)	송파A	드림홀	19:30
7월 1일(토)	도곡	화평홀	18:00
7월 7일(금)	POINT5	도곡 온유홀	20:00
종강예배 없음	Bridge33+	-	-

캠퍼스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25일(일)	부천 사랑	기쁨홀	16:00
6월 30일(금)	부천 소망	비전홀	20:00
6월 30일(금)	부천 믿음	기쁨홀, 경찬홀	19:00
7월 1일(토)	부천 화평	비전홀	11:00
7월 9일(일)	부천 희락	기쁨홀	16:00
6월 28일(수)	수원 연합	본당	19:30
6월 23일(금)	대전 동누리	본당	19:30
6월 30일(금)	대전 서누리	비전홀	19:30
6월 30일(금)	대전 남누리	본당	19:30
6월 30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본당	19:30
6월 28일(수)	남양주 연합	3층 본당	19:30
6월 23일(금)	평택 연합	2층 본당	20:00
6월 23일(금)	인천 북누리	본당	20:00
6월 24일(토)	인천 서누리	양지 비전빌리지	18:00
6월 24일(토)	인천 남누리	글로벌캠퍼스 체육관	10:30
6월 25일(일)	인천 동누리	소망홀	18:00
6월 23일(금)	강동 동서울A	12층 본당	20:00
6월 23일(금)	강동 동서울C	10층 사랑홀	20:00
6월 30일(금)	강동 동서울B	12층 본당	20:00
6월 25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14:00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26~31

〈창세기〉1장의 창조 가사는 인간의 창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동물의 창조는 아주 간략하게 서술할 뿐입니다. 천사의 창조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방식까지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가 피조 세계에 면류관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지를 의논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그 의미

〈창세기〉2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흠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일째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다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병행법으로 같은 단어를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단어를 분리시켜서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양은 파괴되었지만 형상은 남아 있다’ 등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한 것뿐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걸작으로 역사에 등장했을 때 이미 인간의 모든 특성과 활동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의지, 합리성과 양심, 사상과 언어, 도덕과 윤리, 결혼과 가정, 문화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계속 창조론과 반대되는 진화론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진화론은 인간의 초기 시대에는 유인원의 단계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인간의 특징이 없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생물체로, 생물체에서 원시 유인원 단계에 이르렀으니 사고력, 문화, 문명, 공동체가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더딘 속도로 동물적인 야생 상태에서 현대적인 문화 수준으로 발전된 진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오랜 시간,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원에 관한 물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 매우 느린 화면으로 보든, 빠른 화면으로 보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느린 기적이나 빠른 기적이나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빨리 이루어져도 믿는 것이고, 느리게 이루어져도 믿는 것입니다. 느리고 빠른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빠르게 만들어졌든 느리게 만들어졌든 그 속도는 기원과 상관 없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피 메커니즘’입니다. 거기에 숨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문학가이자 저널리스트 체스터 톰슨은 선사 시대 인간이 동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증거로 책을 썼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진화를 비판하고 창조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창조의 시각으로 인류의 문명을 훑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초기, 문명이 시작되었을 시기에 인간이 했던 일이 동굴에 나타납니다. 동굴에 나타난 흔적은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흔적은 벽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사 시대 유물이 나오는 동굴 속 벽화들이 발견되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라스코에서 발견된 라스코 동굴벽화도 있고, 스페인의 알타미라는 곳에서 발견된 동굴벽화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들을 진화론적 시각에서는 초기 사람들이 그렸다고 하는데 정말 잘 그렸습니다. 원숭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인간이 마무리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그림을 서툴게 그리고 사람이 영리하게 그린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표현 예술을 시작하고 사람이 이를 완성시킨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림을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인원은 사람을 유치하게 그렸고, 그 이후 인간이 멋지게 그린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난 직후 선사시대 그림이 이 정도로 훌륭하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입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겨진 게 동굴의 벽화, 예술입니다. 그들이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어떤 물건으로 남겨놓지 않아서 우리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미개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착각입니다. 원시시대에도 훌륭한 예술이 있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이집트, 남미에 쿠스코 같은데 가면 엄청난 도시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도시를 건설했을까?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 상상할 수 없는 건축 기술이 있었고, 예술 감각이 있었고, 탁월한 수준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개인들이 아닙니다. 미개함과 문명은 언제나 세상에 나란히 공존해왔습니다. 현재에도 문명이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문명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미개함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미개함이 있었습니다. 미개함이 시간이 오래 흘러 문명으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들을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은 동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존재 그리고 의미

〈창세기〉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후 종류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인 토머스 보스턴이 〈천국을 보게 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의 네 가지 상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간이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처하게 된 부패한 본성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알아야 하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분에 의해 거하게 될 각 사람의 영원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무죄한 인간의 본질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없는 상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동굴의 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자체가 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사십시오.”

작일 뿐만 아니라 걸작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 개발할 수 있는 창조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셋째,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가장 많이 인정받는 해석은 ‘인간은 이성으로 사색하는 존재’입니다. <판세>에서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한 개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우리들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 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자신의 품위를 높여야 할 것은 이 생각에 의해서이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이나 수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동물들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 일부 부모가 돌봐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서 씩니다. 그러나 인간이 낳은 아기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장 연약한 갈대 같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기에 위대한 존엄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결국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알려 줍니다.

넷째,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관계성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도 관계 안에서 인간다움을 가집니다. 참된 인간다움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만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낱자

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번성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대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려고 했을 때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통치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땅에 가득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문화명령입니다. 정복하라는 명령은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의미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심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움이 계속 시험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모험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험에 의해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모험적입니다. 인간에게 모험심이 없다면 발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피조물을 통치할 능력을 주신 것도 모험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도 모험

입니다. 자유의지란 순종할 자유와 배반할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인간이 과대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쟁자로 자처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각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것까지 각오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일곱 개의 존재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 아래 있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인간의 능력이 계속 개발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자 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139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시 139:13-18).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태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태를 아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렇게 많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체를 이루지 않은 때에도 온전한 형상으로 보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계셨으며, 나의 달란트를 알고 계시며, 나를 향한 보배로운 수많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를 도구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갈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때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창조섭리 부정하는 이념 ‘젠더주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개인의 성적(性的) 이끌림의 방향성’을 뜻한다. 동성에 이끌리면 동성애, 이성애에 이끌리면 이성애, 양쪽 모두에 이끌리면 양성애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이성애자에 대한 성적지향의 소수자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장한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생물학적 성과 반대의 성이라 주장하거나 남녀 양성애 아닌 다른 성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별정체성의 소수자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장한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실체는 명확하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포유류이고, 포유류는 양성을 가진다. 즉,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과학에서 성의 분류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개인의 성은 단순히 어떤 생식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에 이르는 거의 모든 세포마다 남성은 XY 성염색체를,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 성염색체에 남성 혹은 여성의 유전적 특성이 새겨져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차이가 6500개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7)는 성경말씀과도 일치한다.**

20세기 젠더이념의 운동가들은 생물학적 특성인 성(sex)과 별도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자기식별을 의미하는 성별(gender)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성별은 여성이라거나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중에도 더 남성적이거나 덜 남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명확히 분리된 두 그룹에서 각각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끝에는 강한 여성성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강한 남성성이 있는 하나의 연속된 스펙트럼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생물학적 성은 불변이다.

트랜스젠더 이념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부정하는 최악된 거짓이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7)는 성경말씀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합성호르몬의 사용은 오히려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의사들은 생물학적 성(sex)을 환자가 선호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에 맞추기 위해 고안된 위험한 실험적 치료를 열성적으로 수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적으로 파생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젠더운동은 결국 그 고정관념을 신격화하고 심지어 반대 성의 고정관념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의료화해서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트랜스젠더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UCLA 로스쿨의 윌리엄스 연구소(Williams Institute)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젊은이의 수가 지난 몇 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라고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불만족하는 것)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배나 증가했고, 2021년에는 4만2천 명 이상이 진단을 받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TikTok에서 ‘#trans’를 검색하면 2023년 초에 조회 수 502억 회를 기록했으며, 그 숫자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39%가 자신을 LGBTQ(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는 청소년 외에도 일부는 이제 자신이 ‘남녀양성에 속하지 않는(non-binary)’, ‘이상한 젠더(gender queer)’ 또는 점점 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스스로 만든 성별 분류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모든 의료 관련 학회에서 치료의 기준을 만들거나 평가할 때 반드시 성소수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법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은 절대적이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표준치료지침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를 치료할 때는 그 아이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반대 성인 것처럼 취급할 것을 치료자에게 명령한다. 만약 가족들이 이런 치료를 거절하면 어린이에게 자살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생물학적 성은 불변이다. 호르몬이나 수술과 같은 의학적 개입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생물학에 역행하는 의료를 시도하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설상가상 이러한 파괴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성별위화감의 원인일 수도 있는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이념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부정하는 최악된 거짓이념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허규연 집사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18~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 복음주의자들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다. 그들의 선교는 말로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선교였다. 그런데 약 50년 동안(대략 1920~1970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에 맞서 역사적, 성경적 신앙을 변호하고, 자유주의의 ‘사회 복음’에 반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 때 미국에서 <근본적인 것들(The Fundamentals)>이라는 소책자 시리즈가 발간

되었고, 여기서 ‘근본주의(fundamentalism)’라는 말이 나왔다.

복음주의자들이 믿음의 근본적인 사함의 정당성을 옹호하느라 사회적 관심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지면서 점차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각성하기 시작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은 뿌리이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둘 다 그 열매”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사회 활동에도 엄청나게 헌신하며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을 결합시키는 총체적 선교 개념을 회복하게 되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틀 목사는 책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장악하고,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두 가지 이유로 언급한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 지나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섬겨야 한다.”

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 둘째, 그 부르심에 경계선을 그어 정치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복음을 정치화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묻는다. 이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현재 우리가 겪는 혼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이다. 신성한 것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 존 스토틀 목사는 “교회 전체가 정치에 관여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한다. 만일 교회가 성경적 믿음 혹은 의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해 공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라고 한다. 교회가 필요한 전문 지식 없이 뛰어들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전 조사를 거쳐 철저히 준비하되, 일반 기독교 지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의 공동 행동을 권하기 위해 어떤 주제를 시간을 들여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정보에 근거해서 연합한 교회의 입장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기에 각 지역 교회는 교회 내 그룹들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거짓말에 따라 살지 말라!”

크리스천들이 말(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폴슨 펠로우즈 한국 지부 대표)

1974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조국인 구소련에서 강제 추방되기 하루 전 동포들에게 “거짓말에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솔제니친은 그를 추방하는 조국을 인간

의 본성과 사회가 이미 결정된 사양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환상인 이데올로기로 운영되는 체제로 보았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거짓말’로 지칭했다. 조지 오웰도 소설 〈1984〉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국력’이라는 거짓 슬로건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도록 강제하며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 사회를 비판했다.

말(言)을 잘못 사용하면 현실을 왜곡

솔제니친이 동포들에게 정권을 유지시키는 거짓말에 협조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이유는 가장 소심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에 협조하지 않는 게 정신적 독립을 향한 가장 덜 힘든 첫걸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따라 살지 않고, 수동적이나마 저항의 길로 함께 행진한다면 비인간적인 체제 전체가 비틀거리고 무너질 것이라 예견했다. 전체주의 사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존귀한 가치를 갖는다는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우연의 산물인 분자의 집합에 불과한 개인은 체제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에 기반한다. 이 세계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

말(言)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현실을 왜곡한다.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거짓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주의 사회가 고집스럽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거짓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세뇌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솔제니친이나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종류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종류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가 더는 현실을 드러내지 않으며, 현실을 알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한다. 진리는 알 수 없고



“말(言)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거짓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언어는 주어진 게 아니며, 오직 스스로 현실과 단어를 정의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정체성조차 스스로 정의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의미를 임의적으로 반영하는 단순한 괴뢰게임이다. 언어에는 ‘규칙’이 없고, 많은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게 곧 그 단어의 정의다.

1871년 발표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인 루이스 캐롤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험티는 앨리스에게 단어는 “내가 의미하는 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당대 사람들은 험티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니체가 나타나 험티의 말이 옳았고, 언어는 가변적이라고 제안한 이래, 자크 데리다(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해체주의 창시)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언어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언어뿐 아니라 현실도 가변적이라 제안했다. 이처럼 진리의 존재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에서 언어, 예술, 현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객관적 의미가 없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정체성도 스스로 구성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된 존재로서의 인간도 부인한다.

실제 지난 3월 우리나라 법원도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인정해 줌으로써 남성과 여성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남성 대명사(he, his, him)나 여성 대명사(she, her)도 그 사람의 생물학적 현실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현실도 의미 없는 세상에서 언어는 그저 다른 단어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대

명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뭐가 중요한 말인가? 그래서 차별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 대신 새로운 성중립 대명사를 만들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조차 자신을 표현할 대명사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10대들에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라는 말 대신 파트너(동반자)라는 말을 쓰라고 하고, 어머니나 임신부라는 용어 대신 ‘출산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권고한다. 우리나라도 성별 정정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 법안을 발의해 동거와 결혼을 유사하게 취급하며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바꾸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말(言)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말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요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예시인가? 그 해답은 “언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은 실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실이 실현되게 하셨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그 자체인 현실 세계에서 사물의 이름을 짓고, 구별하며, 객관적인 현실과 일치한다. 실제 세상이 존재하고 성별이 구분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일부이다.

단어는 무작위적인 해석 그 이상의 진정한 현실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기본은 육신이 되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임을 알려준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말씀하셨던 기록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은 바뀔 수 없고, 놀라운 힘이 있다!

말씀은 바뀔 수 없다. 문화적 번역에 말과 그 의미를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를 헛된 바벨탑으로 이끌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말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말은 현실을 제대로 묘사하거나 왜곡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은 인상, 믿음, 심지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실제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폭력은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르완다 후투족 지도자들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로, 나치는 유대인을 ‘기생충’이라 부르며 인종 학살을 정당화했다. 오늘날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수정의 산물’, 낙태는 ‘의료 서비스’로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태아의 고유한 가치를 축소시킨다.

단어가 그 고유한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다(故 마이클 보먼 신학 교수).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우리의 말은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 능력의 필수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거짓된 언어를 사용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창조에 반하는 언어 행위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실체와 존엄성, 가치에 대한 공격이다. 여성, 남성 대명사를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다. 단어와 생물학적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 현실을 부정하며, 실제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캘빈 로빈스 목사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지칭할 때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보다 덜 아신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 했다. 라이라버티(신학저널 〈애드폰테스〉 편집장)는 이를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만드신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구별해서 만드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별하는 그대로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거짓에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된 혀(잠 6:17)를 미워하시는 이유이다.

기독교인들은 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와 이단들은 항상 단어에 대해 싸우곤 했다. 단어가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G.K. 체스터턴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참다운 신앙교육!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한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을 거부한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는 상대주의 시대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반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사회는 지나친 성과 위주의 사회다. 자녀들에게 좋은 성과는 바로 학교 성적이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높은 성적을 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를 빠지는 일은 ‘한 번쯤은 괜찮은 일’ 이면서 학원을 빠

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나도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큰아들이 주일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과외 가는 것을 더 챙겼다. 신앙보다 큰아들의 성적이 우선이었다.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큰아들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에서 멀어졌다.

많은 젊은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난다. 학업 또는 성공

보다 뒤로 밀리는 신앙을 사수할 필요를 배우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스르게 하는 거짓 가치관을 갖게 한다. 자녀들이 거짓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살피고, 교육해야 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잠 17:6).

〈잠언〉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이라고 말씀하신다. 손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조부모이자 부모인 노인은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어도 면류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많이 했다. 손자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어린 손자에게 날마다 “창

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고 말해주었다. 손자를 업어서 재울 때마다 “하나님은 준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준희를 사랑해”라고 천천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손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손자가 “응가!”하고 할머니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준희 똥도 예쁘게 만드셨네!”라며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했다.

우리 부부는 큰아들 부부와 손자의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손자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놀랍게도 손자의 유치원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친구를 따라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도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 자율학습을 안 가고

교회 수련회에 가겠다고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부 학생회장 이 되었을 때는 교회를 섬기느라 지방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기도 했다. 그때는 취업연령 제한이 있던 때라 대학을 재수해서 간 데다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아들이 정말 걱정됐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했다. 그리고 같이 대학부를 섬겼던 예쁘고 신실한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은 세 아이의 아빠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대학부를 함께 섬겼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리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둘째 아들을 보면 마음이 참 든든하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일 것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분이 앞서 가시며 자녀의 삶을 열어 가실 것이다. 부모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다운 신앙교육이다.



“부모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다운 신앙교육이다.”

차세대 큐티 간증

“매일 큐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 유년1부 황가은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큐티를 해요 아침에 잠을 많이 자는 편이라 하루를 모두 마치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기독교 OTT ‘풍당’ 도 보고, 엄마, 아빠랑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때 차세대에서 ‘큐티하고 빙수먹자’를 했는데 빙수를 선물 받으려고 큐티를 더 열심히 했어요. 방학이 끝나고 선물로 우유 팔빙수를 받아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큐티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은 지난달 목

상했던 〈사무엘하〉 13장 26~29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다투고 죽이는 형제들’이었어요.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하고, 상처를 준 일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버지로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했어요. 2년 뒤 압살롬은 잔치를 열어 왕자들을 초대했고, 부하를 시켜서 형 암논을 죽이고 말았어요.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후에 죄를 덮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이 암논의 죄를 덮어서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했을 때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큐티하면서 예배시간이 더욱 즐거워

졌어요. 큐티했던 말씀을 목사님이 예배시간에 말씀해주실 때가 있는데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큐티가 말씀과 더욱 친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 엄마, 아빠랑 함께 매일 큐티하고 싶어요.

큐티를 매일하면 성경 이야기도 알게 되고, 주일날 예배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배시간도 즐거워지고요. 다른 친구들도 꼭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황가은 학생
(서빙고 꿈땅 유년1부)



47. 시간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좋아요〉 6월 7~8일
본문 〈예레미야애가〉 2:1~5, 14~17

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보기에서 아닌 것을 골라 보세요.

- ① 아름다웠던 궁궐과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 ② 왕국과 관료들이 모욕당하게 하셨다.
- ③ 홍수로 모든 왕국이 잠기게 하셨다.
- ④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원수같이 되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짓 예언자의 헛된 말을 듣고 기쁘게 따랐어요. 결국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관계없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 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 ②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다.
- ③ 예언자들이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 ④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작은 돌맹이의 섬김

도곡 김윤식 집사의 그 아름다운 헌신

돌담을 쌓는 데는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다. 큰 돌 사이사이를 메꾸는 작은 돌맹이도 필요하다. 제각각 크기의 돌들이 모여 튼튼한 담을 만들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영혼을 먹이는 목회자의 설교, 성도들을 돌보는 리더십의 헌신, 복음 전하는 전도, 이웃 섬기는 공출사역 등 큰 섬김만 있는 게 아니다. 강대상을 닦는 손길, 화장실을 청소하는 손길, 예배당 자리를 안내하는 손길, 성찬을 준비하는 손길 등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헌신을 모아 일하신다.

김윤식 집사(강남B공동체)의 섬김은 작아 보이지만 무엇보다 큰 감동을 선물한다. 스스로 '작은 돌맹이'라고 소개하는 김윤식 집사의 아름다운 섬김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작은 돌맹이 같은 저를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겸손이 듬뿍 묻어나는 김윤식 집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불현듯 제주도 돌담길이 떠올랐다. 각기 다른 크기의 돌을 모아 담을 쌓은 돌담길 말이다. 김윤식 집사의 겸손한 고백과 제주도 돌담길 풍경이 겹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각각 크기의 돌이 모여 돌담이 되듯이,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큰 돌도, 작은 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가장 소중한 재료가 된다.

김윤식 집사는 자신을 ‘돌담 속에 있는 작은 돌맹이’라고 소개했다. 교회에서 아주 작은 헌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강대상 청소, 화장실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성찬 준비, 시니어순 섬김 등 곳곳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섬김에 나서는 김윤식 집사를 칭찬하기 바빴다. 공동체에서 먼저 “김윤식 집사님을 온누리신문에 꼭 소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교회와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작은 돌맹이 김윤식 집사의 섬김과 헌신이 더 궁금해졌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섬김’을 배우다

강남B공동체에서 김윤식 집사의 섬김과 헌신을 모르는 성도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는 섬김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25년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安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 김윤식 집사를 교회로 이끈 사람은 아내다. 아내가 김윤식 집사의 신앙의 첫 선배다.

김윤식 집사의 아내는 동네 작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를 했다.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섬겼다.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김윤식 집사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아내가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다.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는 아내를 보면서 그 섬김의 원천이 궁금했다.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있기에 큰 기쁨으로 헌신하는지 알고 싶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감동을 선물하는 ‘김윤식 집사(강남B공동체)’.

김윤식 집사는 2000년 교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이 생겼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다. 수소문 끝에 2005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리고 신앙의 두 번째 선배 하용조 목사를 만났다. 아픈 몸으로 설교하는 하용조 목사를 보고 큰 감동이 있었다. 자신의 건강보다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인 하용조 목사를 보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본인의 안위보다 타인을 더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섬김이라는 것을 배웠다.

김윤식 집사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모든 성도에게서 섬김을 배우고 있다. 특히 심창구 장로, 이충구 집사, 이호영 집사, 최종순 집사와 함께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모두가 칭찬하는 김윤식 집사가 정의하는 섬김이 남다르다. 그는 “다른 성도들의 섬김에 비하면 자신의 섬김은 가장 작다”고 했다. “섬김이라 말하기도 민망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아직도 섬김을 배우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정의하는 섬김은 배우고 받은 만큼 더 많은 사역과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김윤식 집사의 첫 번째 섬김은 순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처음 온누리교회에 와서 순예배를 드리는데 김윤식 집사의 집에서 예배드릴 차례가 되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좋은 것을 대접하자는 생각으로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 마당에 모닥불도 피웠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피해 집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순예배가 잊히지 않아서 20여 년째 자신의 집을 순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김윤식 집사의 집 지하실과 마당, 옥상이 모두 예배 장소다.

김윤식 집사가 가장 잘하는 섬김은 교회 청소다. 도곡교육관이 처음 생기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곳곳에 먼지가 많았다. 이충구 집사와 함께 팀을 꾸려 교회 곳곳을 청소했다. 그때 청소봉사팀 ‘도곡 러빙핸즈’를 만들었다. 김윤식 집사는 지금도 교회 곳곳을 돌리보는 게 습

관이다.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고장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한다. 굶은일이 필요한 곳에는 늘 김윤식 집사가 있다.

김윤식 집사가 가장 오래 섬긴 사역은 성찬식 준비다. 김윤식 집사는 심창구 장로의 권유로 10여 년 동안 도곡교육관 성찬팀 팀장으로 섬겼다. 성찬식 준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성찬팀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예배별로 떡을 성도 수에 맞춰 나누고, 포도주가 담긴 잔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씩 걸어야 한다. 떡과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넘어지거나 겹치지 않게 진열하는 일까지 마쳐야 토요일 일과가 끝난다. 주일에는 첫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김윤식 집사에게는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다. 섬김이 감사와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섬김 그 자체를 몹시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저처럼 작은 사람도...

김윤식 집사가 또 다른 섬김을 시작했다. 강남B공동체 시니어순 순장이다. 교회를 위해 30~40년 헌신한 시니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지난해 시니어순을 개설했다. 매주 집에 시니어 성도들을 모셔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때에 맞춰 나들이도 간다. 시니어 성도들의 집 전구가 나가거나 수도가 고장 나고, 화장실 타일 교체가 필요하면 직접 방문한다. 밤이 고 낮이고 상관없이 공구를 들고 달려간다. 이 아름다운 섬김 덕분에 김윤식 집사는 강남B공동체에서 ‘인기쟁이 순장’으로 불린다.

이쯤 되면 어께가 으쓱해질 법한데 김윤식 집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 이토록 많은 섬김을 하면서도 김윤식 집사의 몸과 마음에 지침이 없고, 교만도 없다.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다. 김윤식 집사에게 마르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저처럼 작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감사와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마 21: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마 21:19).

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무화과의 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의 인격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이 구절을 참 이해하기 난감할 것이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따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자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몹시 배가 고파데 먹을 열매를 얻지 못해 신경질을 부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수박에 겹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매우 암시적인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예

언자들이 자주 행했던 상징 행동이다. 볼 눈이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읽어보면 납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가셨는데 기도는 하지 않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성전의 참된 기능을 못하는 유대 종교와 성전을 상징한다. 무화과나무가 종종 유대교를 상징해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저주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유대교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종교

시는 것이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화과나무가 마른 기적 현상에만 궁금증을 가진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는 영원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 참된 종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지난주 신문(6월 5일자) 5면 '맛있는 말씀 해설' 본문 중에서 '물과 같이 단순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은 끓는점이 매우 낮아 특별하지 않다면 영하 68도에서 끓어 상온에서는 기체가 되어야 한다'가 정확하기에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는

성전의 참된 기능을 못하는 유대 종교와 성전을 상징한다.”

고, 온갖 종류의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시각장애인인 다리가 불편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뻐하기보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 상황을 겪고 난 다음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찾으셨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는 언제든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제철을 기다리며 잠을 자는 종교는 더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어는 종교가 아니다. 어디에서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과 열린 교제를 할 수 있는 종교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볼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회복을 위한 간구와 증인의 사명

<예레미야애가> 3:40~
5:22, <사도행전> 1:1~11



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지속적인 죄악과 반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예레미야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간곡히 권면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유다의 지속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원조만을 애타게 의지하던 유다는 결국 파국을 맞는다.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쳐들어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지켜보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린다. 예레미야는 이 일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

묵상포인트 1

: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지도자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죄’를 참회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불의한 상황을 공의로

라고 고발한다.

묵상포인트 2: 참담한 치욕의 상황에서 주목할 한 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탄원만이 확실하고 유일한 소망이다.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예레미야는 패망한 유다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피 주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은 모든 것을 이방인에게 빼앗겼기에 유다 백성은 고아와 과부 같은 빈곤한 처지로 전락했다. 부녀들과 처녀들이 유린당하고, 지도자들은 처형되며, 청년들은 노역에 끌려가는 등 예루살렘성에는 치욕과 불행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를 주목하며 기도한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며 돌이킴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묵상포인트 3: 누가는 데오빌에게 첫 번째 글 <누가복음>에 이어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을 보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성취되는지를 알린다. 복음 사명의 완수와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재림 약속을 묵

상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시기에 관해 묻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복음 사명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환기시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레미야는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권면한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 가족 혹은 공동체 구성원이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이 없는지 살펴보자. ▶예레미야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며 겸손히 은혜를 간구한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의와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구하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족을 전도하지 못함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주시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저희 삼남매 모두 주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동생들이 교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 신앙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겪은 어려움과 가정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누나인 제게 문제를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둘째 동생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기도해주시요.

막내는 몇 년 전 편찮으신 어머니와 함께 몇 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를 기회 삼아 전도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 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내는 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막내의 마음 밭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싹기기를 기도해주시요. 막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도록 기도해주시요.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안식은 그침, 쉬, 받아들임, 향연의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 중요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멘토님!”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이다. 십계명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다. 그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이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창조의 피조물을 돌아보시며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창 2:3).

〈창세기〉1장은 6일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피조물을 창

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토브)”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안식일은 선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루는 또 다른 창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안식〉이라는 책의 저자 미르바 던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식의 의미를 ‘그침(Ceasing), 쉬(Resting), 받아들임(Embracing), 향연(Feasting)’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은 대부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아쉽게도 많은 크리스천이 안식일에 두 시간 남짓 주일예배 참석 외에는 개인의 모임, 취미활동, 비즈니스 등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신약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제자들 무리와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

안식일에 단순히 일상적인 일과 행위를 잠시 멈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든 세상 근심

과 일에 대한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원죄와 자기 의와 욕심과 교만을 완전히 멈추고 회개와 정결을 회복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의 안식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변의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은 서로에게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향연이며,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안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족쇄가 되어 버리는 잘못된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혹여 스스로 안식일에 율법의 종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28).

하나님이 “안식일을 율법적, 형식적으로 여기고 지키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참된

안식은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영육 간에 모든 것을 쉬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처럼 오직 기쁨으로 동역자나 공동체 지체들과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기쁨의 축제날이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자카르)”고 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안식일이 ‘그침, 쉬, 받아들임, 축제와 향연’의 날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자.



신재영 멘토
(요셉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좋은 경청자, 바람직한 경청자

의사소통은 부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의사소통에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경청’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놀라운 소통이 이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딱히 멋있는 말로 화답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말하는 사람이 놀라운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집들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 놀라운 해결책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잘 들어주는 진실한 경청자 한 명만 있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들어주는 사람과 친밀해지는 느낌도 갖게 된다. 부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경청’이다.

경청은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갖는 태도다. 삶에서 특히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관심을 갖고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결핍됐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기도 한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경청자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

너무 바쁜 부부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여유가 부족하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뒤로 밀리기도 한다. 정말 중요한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 평소엔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순간에 배우자가 방문을 열고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하던 일을 놓을 수 없고, 배우자의 힘든 이야기도 들어줘야 해서 “그래그래, 힘들었겠구나”라고 무심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귀는 열려두는 것 같지만 손과 마음은 컴퓨터 화면의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눈은 여전히 몰두해 있던 일에 쫓혀있고, 마음은 심각하게 분주하고, 어깨는 움츠려 들어있고, 신경은 몹시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랬구나”라는 말을 흘리듯 던진다. 표현하는 말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자세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 물론 “잠시 뒤에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경청자의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안이 급하고 중요하다면 즉시 들어줘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멈춤’이다. 하고 있던 일을 멈추는 게 경청자의 자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순간이라도 배우자가 급하고 힘든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면 멈춰야 한다. 혹여 아이디어들이 사라지더라도 부부이기에 일이 아닌 관계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동을 멈췄다면 경청자가 해야 할 그 다음 일은 몰두해 있던 일에 대한 생각도 멈추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하던

행동을 멈췄다면 몰입해 있던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멈춤’은 좋은 경청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다.

하던 일과 생각을 멈췄다면 경청자는 몸을 틀어서 배우자를 바라봐야 한다. 몸을 돌려서 분주했던 눈동자를 배우자의 눈에 맞춰야 한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청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몸을 돌리고 눈을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다.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것에 애쓰고, 몸을 돌려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청자의 자세를 취한다면, 말하려는 배우자에게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부는 상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몰입하면서 해야 할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배우자의 태도에 깊은 사랑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경청자의 태도는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다. 나름의 판단이나 결론으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배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청자의 자세는 낮은 자세로 들어주는 태도다.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를 늘어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충분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를 갖는 게 좋은 경청자의 자세다.

들으면서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듣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경청자라고 할 수 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다면, ‘상대의 위치에서 생각해보고, 느껴보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청자의 자세다.

어쩌면 우리는 일을 해결하고 해치우는 것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느껴볼 여유 없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영향으로 부부의 의사소통이 짧고, 직선적이고, 해결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라는 공허함이 가득할 수 있다.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경청자가 되어줘야 한다. 바람직한 경청자의 자세를 서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가 좋은 경청자인지, 바람직한 경청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듣고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경청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사 28:23).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장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손양원 목사의 신앙을 품은 '여수'

이세연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답다. 답다. 왜 이렇게 답지?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 지구온난화를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아닌 내면의 온난화가 일어나 매일, 매년 하나님을 닮아 뜨거워지면 어떨까? 우리 생활방식이 분명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더운 여름을 보내며 지구 온난화에 걱정이 많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내면의 온난화를 위한 배움과 수고의 발걸음을 내디뎌보면 어떨까?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신앙교육여행지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를 만날 수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다. 여수에서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애양원'이다. 애양원은 1909년 포사이트 선교사가 길에 쓰러진 나병환자를 치료한 일을 계기로 설립됐다. 1911년 4월 25일 전라도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서 우월순 선교사에 의해 광주 나병원으로 시작해서 1927~1928년 현 소재지인 여수(신풍)로 단계적 이동했다. 그때 교회(애

양원교회)도 함께 이주했다. 1939년 손양원 목사가 2대 담임목사(목사안수는 1946년)로 부임했다. 손양원 목사는 이곳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역했다.

손양원 목사는 1940년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이후 체포, 심문, 투옥을 반복했다. 5년 동안 감옥생활 했다(1940.9.25.~1945.8.17.). 해방 이후 평화롭고 일상적인 목회활동을 이어가는 것 같았는데, 해방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을 피해가지 못했다. 1948년 10월 19일,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사건). 이때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좌익세력에 의해 순교했다. 이후 계엄군에 의해 살해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 구명운동을 전개해 안재선이라는 살해범을 살려내고 양아들로 삼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퇴각하던 공산군이 기독교인을 처형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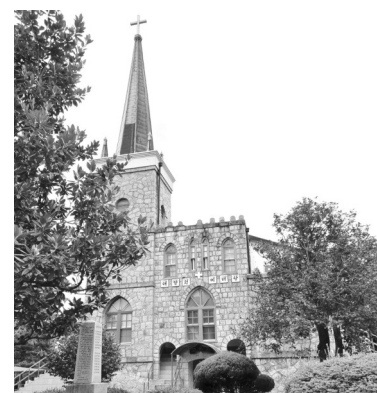
애양원교회는 증개축으로 당시 모습은 아니지만, 석조에 의한 기본 골격과 창문의 형태 등 전체적인 원형은 유지하고 있다. 교회 건물은 마주하고 있는 애양병원과 함께 1926년 포사이트 의료선교사에 의해 광주로부터 이전해 세워졌다. 2019년 제8대 담임목사(임

용환)가 부임했고, 교회 계단 복원 및 로비공사를 마쳤다. 로비에도 애양원교회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펼쳐 놓아서 방문객들에게 좋은 정보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 맞은편에는 애양병원의 건물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새롭게 단장한 애양병원 역사 박물관이 있다. 한센병의 역사와 변천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물품과 사진, 읽을 수 있는 자료를 풍성하게 마련하고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건물 외관 및 내부는 특별한 디자인의 건축물임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성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당시 그 지역의 생활상, 소외받고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예상치 못한 배움과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은 2층, 총 6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양원 목사의 생애와 아홉가지 감사, 순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사랑의 원자탄 5분 영상 상영을 위한 영상실, 20석 규모의 세미나(기도실)실을 갖추고 있다. 그곳에 쓰인 글씨 하나하나, 물품 하나하나를 눈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정갈하고 아름답게 관리된 넓은 기념공원도 있다. 손양원 목사가 두 아들 순교 이후 적은 아홉 가지 감사제목을 상징해서 만든 '사랑의 열매탑'과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은 모습을 형상화한 '사랑과 용서의 조형물'을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다. 손양원 목사와 정양순 사모의 합장묘, 두 아들의 묘가 함께 있는 '삼부자의 묘'를 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다. 곳곳에 세워진 비석들의 글귀를 읽으면서 걷는다면 신앙인 내면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기념관 앞에 있는 여수지역 순교자들(손양원, 허상용, 지한영, 지준철, 조상학, 윤형숙, 이선용, 이기풍, 양용근, 안덕윤, 손동인, 손동신, 김정복)의 기념비를 하나하나 눈에 담아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 보자. 풍성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깊은 배움을 얻으면서 내면의 온도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려 하나님 마음과 가깝게 될 것이다.



애양원 예배당 전경.

두란노 신간

신앙과 일상의 답을 찾고 있다면?

《조정민의 답답답2》
조정민 저 | 두란노 | 15,000원

다. 자동차는 정비소에 가야 고장 난 것을 수리할 수 있고, 죄로 일그러진 인간은 하나님께 가야 회복이 됩니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며 그 내용을 독자와 나누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자의 큰 사랑을 받은 조정민 목사의 《조정민의 답답답》 그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조정민의 답답답2》는 유튜브 채널 ‘더메시지랩’에서 질문 85개를 엄선해서 조정민 목사가 명쾌한 답과 위로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앙생활과 관련한 질문뿐 아니라 성공, 행복, 연애, 관계에 관한 성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자동차를 소상하게 알듯이, 인간을 지으신 이가 인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추천 기독교영화

바로 그 순간 ...

‘하나님의 마음’
드라마 | 데이비드 헬링 감독

“왜 하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재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다. 상처투성인 몸과 마음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아브라함이 찾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영화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하나님의 마음’이 6월 28일(수) 개봉한다.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렸다. 이 영화에는 눈앞의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꿈이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이삭을 “재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녹색제품’ 구매 실천하기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2) 녹색제품 종류

- ① 환경표지제품: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② 우수재활용(GR)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저탄소인증제품: 원료, 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

3) 녹색제품 구입할 수 있는 ‘녹색매장’

-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
- 전국 녹색매장 192개. 이마트, 롯데마트, 갤러리아, 초록마을, 홈플러스 등 유통매장
- 녹색매장 지정업체 및 매장 현황
www.data.go.kr/data/15043633/fileData.do



2023 장로수련회에서 장로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2023 장로수련회 ‘축복의 노래’

온누리교회 장로, 교역자 등 250명 참석

2023 온누리장로수련회(이하 장로수련회)가 지난 6월 9일(금)과 10일(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조트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장로(사역, 시무, 명예, 협동), 교역자 등 250명이 참석했다.

‘축복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장로수련회는 원과 교제, 화합과 축복의 장(場)이었다. 개회예배, 주제특강, 조별나눔, 공연(축복의 노래), 합심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을 소망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태열 장로(마포공동체)는 “이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돼 유익했다”고 했고, 홍성호

장로(당회서기)는 “장로님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해기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는 “이번 장로수련회를 계기로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더욱 화합해서 다음세대와 열방을 축복하고, 더 열심히 중보기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CGN, 6월 11일 오후 3시 20분 다큐멘터리 방영

CGN이 성 혁명적 성교육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을 6월 11일(일) 오후 3시 20분 방영한다. IPTV, 케이블 TV, 유튜브 CGN 채널과 ‘풍당’ 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분별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어긋나게 성에 관한 수치를 자극하는 내용의 성교육을 강요받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박현규 장로, 군포시장 표창장 받아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



박현규 장로(경기 A공동체, ㈜두비산업 대표)가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포시장(하은호)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 6월 8일(목) 온누리 청소년센터(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별관에서 표창장 전달식이 있었다. 군포시장을 대신해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송영범 장로가 표

창장을 전달했다.

박현규 장로가 운영 중인 ㈜두비산업은 온누리복지재단과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가정 밖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박현규 장로는 “위기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재가 되도록 앞으로도 기도하고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9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

레바논 난민 지원 및 우간다, 캄보디아 후원

지난 6월 6일(화) 서울 천호동 코리아탁구장에서 제9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가 열렸다. 레바논 난민 지원과 우간다, 캄보디아 후원을 위한 자리였다.

제9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에는 온누리교회 교역자, 장로, 성도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 개인전 경기, 단체전(공동체별) 경기,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이날 김태완 목사(양재2000선교)는 “최선을 다했다면 승리의 월계관뿐만 아니라 패배의 흠뻑지 속에서도 영광이 있다”고 설교했다.

〈생명의 삶〉표지 사진 공모전

6월 30일까지 1인당 세 작품 이내

〈생명의 삶〉표지 사진 공모전이 6월 30일까지 ‘오늘, 예수 안에 살다’를 주제로 이어진다. 믿음, 은혜, 감사, 묵상 등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표현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중인 〈생명의 삶〉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세 작품 이내로 제출

하면 된다. JPG 또는 JPEG 파일(작품당 20MB 이내, 해상도 2700x4050pixel 이상 권장), 표지 적용을 위한 세로형 사진을 권장한다. 보정 없는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의 삶〉캠페인 페이지(www.durannoQT.com)로 하면 된다.

문의: durannoQT@duranno.com

양재 새가족

일시: 6월 18일 15:30 /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김은영 김현일 박수경 방옥희 이근찬 이정란 정옥재 조준희 황정미	변상호 유정열 윤지원 이설희 이요한 이은정 지명진 최홍석 한 나	강남D 황유선	경기A 김민석 김종완 박상규	분당B 박미정	이상희	박선주
강남B 곽상희 김윤숙 김종재 박동각 박미영	강남C 김명숙 박춘희 양승현 윤석현 이현주 허인열	강남E 강주현 김유정 남준상 박세은 박영호 박재홍 유진경 윤은혜 이 근 이은희 최수연	도곡 권기영 김은영 안재홍 이승명 전희정 조 웅 최은영a	서초A 박유미 시윤정 오흥천	서초D 채 민 최원혁	서정훈
				서초B 김정남 이선복 전미영 최규용	송파A 김원자 박지애 이계영 최금애 최성일 하진홍	이영재
			분당A 김성기 이군자	서초C 배정화 송영혜	양재A 강성철 강용돈	정경희
						조채린
						양재B 김광자 신해자 이명숙 조영자
						푸른누리 정세철 한승호

두란노어머니학교 ‘회복의 여정’

두란노어머니학교 ‘회복의 여정’이 진행된다.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주제로 열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회복의 여정’은 다양한 주제 강의를 통해서 자신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일일세미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배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2-2192-9114

두란노어머니학교 6월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6월 P.P(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6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문의: 02-2182-9114

6월 화요성령집회 ‘GO’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대학청년부 6월 화요성령집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6월 화요성령집회는 ‘GO’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6월 화요성령집회 ‘GO’에서는 13

일 최성민 목사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향해, GO’ (고후 11:16~30), 20일 이서진 목사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GO’ (눅 15:1~7), 27일 최성민 목사 ‘세상 끝, 열방을 향해, GO’ (온 3:1~10)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가 7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파주 솔 수양관에서 열린다. 이번 내적치유학교는 3040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6월 1일(목)부터 7월 2일(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애착의 고통과 회복’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16만 원(장소 대여, 교재, 간식, 강의 준비물 포함)이다. 문의: 010-6330-7634

말씀 해설,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문분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

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daa2@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고유미 성도(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유년2부 교사)

최고의 행복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과정으로 27기 온누리전도학교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나는 현재 미션스쿨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한 경험이 없다. 지난해 말 학생 중 한 명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해서 힘들어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에 초대했다. 하지만 그 학생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학생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커졌다.

온누리신문에서 온누리전도학교 참가자 모집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온누리전도학교 첫날 수업에서 훈련 기간 중에 노방전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되었다. 노방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부조장님이 손수 만들어 온 전도도구들을 보여주며 경험을 나눠주시는 걸 듣고 노방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매주 조장님의 전도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분들의 신앙 경험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임을 깨달았다.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원이 전도할 때 전도대상자가 영접기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어서 기뻐다.

지난 5월 7일 그 학생에게 <최고의 행복>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다. 그 학생이 이제야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서 정말 감사했다. 5월 8일에는 아버지께서 ‘행복드림콘서트’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전도지 기본전문을 외우는 게 큰 부담이었고, 섬기는 차세대 사역에도 지장을 줘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조장님과 부조장님, 조원들이 늘 따뜻하게 격려해줘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로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온누리전도학교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더 많은 분이 온누리전도학교에 참가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 유아세례 간증



/ 부 김태현, 모 성주영, 자녀 김운유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선물 ‘운유’

우리 부부는 2013년 결혼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주의도, 그렇다고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의도 아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이 바뀐 사건이 있었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부터다.

2018년 3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그 일을 계기로 신앙의 침체를 겪었다. 우리 부부가 만나고 결혼예배를 드렸던 교회를 떠났다. 2019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순예배에 참석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는 순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아이 갖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현재 우리 부부 상황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여전히 있었다.

큰아버지 두 분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평소 죽음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큰아버지 두 분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큰 슬픔에 빠졌다. 얼마나 슬프고 충격적이었는지 시력이 갑자기 나빠질 정도였다. 그때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도 갑자기 다가올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녀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나의 결심이 곧바로 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리 부부의 나이가 많았기에 몇 번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거쳐야 했다. 그렇게 운유를 만났다. 임신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실패하는 과정 동안 순 식구들의 기도가 우리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었다. 그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음을 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삶,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의 도전이 언제나 두렵고 피하고 싶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기에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고백하게 하셨다. 운유의 손가락이 10개여서 기쁘고, 발가락이 10개여서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우리 가정에 운유를 선물로 주셨다. 작은 태아가 자라 이 세상으로 나오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다. 운유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운유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김윤선 성도(수원온누리교회)

청년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무렵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 기도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다. 남편은 정말 착했고, 순수하게 나를 많이 사랑해주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 인생을 신바람 나게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픈 마음이 컸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다.

부모님 그늘 아래 특별한 걱정 없이 살았던 나는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만 했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청년부 시절 열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앞에 밑바닥을 드러냈다. 온갖 걱정이 나를 덮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크고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평생 살아갈 생각을 했더니 막막했다. 올해 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웠다. 남편에게 화를 내는 날이 점점 많아

세 가지 은혜

졌다.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참가를 제안했다.

하가훈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 첫째,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깨우쳐주셨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며, 그 질서 안에서 사랑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고, 가정의 질서로 인해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둘째, 내가 한 결혼의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다. 더불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며, 기다려주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임을 알게 하셨다. 셋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알게 하셨다. 부부가 연합해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남편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가훈을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하가훈에서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할 것이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정태용 순장(용산공동체)

지난 2월 중순 하던 일을 모두 멈췄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휴식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며칠 쉬었더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강박관념이었다. 그때 아내가 이 휴식 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자고 권했다. 순장학교를 비롯해서 OBC 요한복음, 성경낭독스쿨에 등록했다. 일대일제 자양육도 시작했다. 일주 일 내내 분주했다.

처음에는 휴식으로 인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기에 집중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성경공부와 순장학교 과제에 투입하면서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후회가 들었다. 그럼에도 아내와 함께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기쁨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변화되고 있음도 알게 됐다. 항상 달라는 기도만 했었는데, 모든 것에 감사한 기도로 바뀌었다. 순장 실습을 하는 날에는 미리 순예배 장소를 확보하고, 식탁교제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기쁨도 있었다. 공동체 순장교육 참관에 처음 참석했을 때 순장들이 환대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식사 교제하는 것 자체가 감사였다. 순

100일 동안 누린 자녀 됨의 특권

장학교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남양주M센터로 아웃리치를 갔다. 인도 형제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 듣고 순장들이 상의해서 힌디어 찬양 특수를 올려 드리기로 했다. 인도 형제들의 배경과 언어 등을 고려해서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골랐다. 힌디어 자막이 있는 영상, MR 영상 제작, 연습,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0일 남양주M센터를 찾았다.

남양주M센터에서 인도와 네팔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 채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과 드린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깊게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다.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도마가 생각났다. 가슴에 잔잔하게 남은 인도 청년들의 선한 눈빛이 아웃리치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았다.

휴식 과정에서 시작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이 100일 정도 휴식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다. 지난 100일은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누린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장로칼럼

"형 고마워!"



황재익 장로
(서초B공동체)

나는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에서 동생을 전도했다. 황현익(76세), 내 동생이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다가 625전쟁 중에 공산당 앞잡이가 된 집 머슴의 추적을 피하다가 내가 다섯 살 때 병사하셨다. 당시 스물아홉이던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양육하셨다. 그 후 어머니가 먼 친척에게 담보를 썼던 일이 잘못되어 한겨울 모든 것을 잃고 쫓겨 나와 길거리에서 떨며 서 있게 되었다. 마침 지나가던 친구(김일수: 삼성전자 전무) 어머니께서 조그만 연탄광을 급히 치우고 흙바닥 위에 신문지를 깔아주셨다. 구부리고 들어갔으나 4명이 앉기에는 공간이 좁았다. 다음날 동생이 없어졌다. 성격이 활발하고, 운동신경이 좋고, 재주가 많은 동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없이 군에 자원입대한 것이다. 동생은 어린 나이에 군대 생활을 훌륭하게 마쳤어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지라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동생은 여러 종류의 일을 하다가 경찰이 되었다. 동생은 언제 어디서든 정직하고 유능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찰로 남양주 지역민들에게 알려졌다. 동생이 퇴직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이 많다. 동생을 보면서 집안이 어려웠던 시절 내가 차라리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갔으면 어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동생이 나 대신 학업을 계속 했더라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지금쯤 가문이 더 빛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

도 늘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동생은 어머니를 누구보다 지극히 사랑하는 효자이다. 나를 형님으로 깎듯이 모시고 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존경스럽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당을 다니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늘 고민하다가 이번 행복드림콘서트에 동생을 초대했다. 동생이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에 와서 스테프들과 테이블 조장(주수일 집사)의 친절하고 온유한 섬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또 윤형주 장로님의 간곡한 복음 전도와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행복드림콘서트 덕분에 동생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례를 받았다. 동생은 대장암과 간암 수술을 세 차례 받았고, 아직까지 암 투병 중이지만, 지금도 남양주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 일같이 돕기 위해 늘 애쓰며 선하게 살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나의 오랜 숙원을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이루었다. 요양병원에 계신 102세 어머니께서 누구보다도 세례받은 동생을 축복해주셨다. 어머니는 하용조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시고 많이 우셨던 일이 있었다. 그 어머니께서 동생이 세례받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아범, 수고했어”라고 하셨다. 세례받은 날 동생은 “삶의 희망과 의미가 생겼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나에게 “형, 고마워!”라고 인사했다. 행복드림콘서트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앞으로 내 동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한다.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 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한다.

권사칼럼

시니어 군대여, 일어나자!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1970년대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나도 그때 마른 뼈였는데 살아났다. 당시에는 길거리는 물론이고, 가가호호 방문해도 사람들이 문을 잘 열어줘서 복음 전하기가 쉬웠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때의 마른 뼈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 전도가 어려워.” 시니어들이 이런 말을 자주한다. 전도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복음의 열정은 커녕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 하나님이 내게 “그들은 시니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시니어들을 깨워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셨다. 경기A공동체 신용년 권사님이 이전에 다녀온 ‘보는 아웃리치’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 말을 어르신들에게 다시 찾아가자고 했다. 김순화 권사님과 신용년 권사님, 나까지 셋이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대추팔 일손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 공동체 권사님들이 일손을 돕겠다고 11명이나 달려갔다. 아무리 바빠도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에 마을 정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준비한 떡과 선물을 드렸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도록 대추를 땀다. 적기(適期)에 도움을 줘서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마을에 영향력 있는 몇 가정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전도하다가 만난 갈산경로당 총무님을 통해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을 섬기겠다고 했다. “

전도하면 안 된다”는 말에 우리는 입을 봉하고 열심히 섬기기만 했다. 어르신들 경계의 눈빛이 조금씩 풀리고 우리와 친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분들에게 “나이 들어도 한 번 시인이 돼 봅시다”라며 나태주의 시 ‘풀꽃’을 소개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고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며 즐거워하셨다.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르신 한 분이 속이 답답하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속이 뚫렸다면 우리 가장 먼저 반겨주셨다. 어느 날은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병문안 가서 기도해드렸더니 감격하셨다. 때마다 김장과 장을 담가드리고, 성탄절 선물을 나눠드리는 등 10개월을 말없이 섬겼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났다. ‘천국 잔치’를 열겠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저마다 홍보하겠다고 하셨다. 그날 행사에 몇몇 권사님들은 음식으로, 권용성 사역장로님은 기도로 섬겨주셨다. 평소보다 세 배나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다.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길게 연설하면 자리를 뜬다고 총무님이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20분을 전했는데 한 분도 움직이지 않고 경청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흔히 경로당 잔치는 푸짐한 음식과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워 드리는 게 관례였는데,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이 오히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은퇴장로, 은퇴권사는 사역자다. 노인은 은퇴한 이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존재가 아니다. 길을 제시하는 ‘노인(略人)’이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신하자. 시니어 군대여, 일어나라!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지난 6월 4일(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한누리 2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200여 명의 남북한 성도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2000년대 초반은 탈북민 입국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였다. 때마침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모아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2003년 양재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 하나공동체가 탄생했다. 남북한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 서울 가양동(한터공동체), 남양주(북사랑공동체), 부천(한사랑공동체), 대전온누리교회(한누리공동체)에 예배공동체가 생겼고, 한누리 통합사역이 시작됐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

름답게 성장한 공동체와 사역팀을 보면서 한누리 2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리는 내내 감개무량함을 느꼈다. 앞으로 한누리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생각했다. 2010년부터 탈북민 중에서 신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탈북민사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탈북민 복음화를 돕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지원하고, 탈북민 출신 전도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잘 훈련받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국면이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를 ‘비보호’라고 통칭하는데,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렵다. 기존 공립학교가 그들을 수용하기 힘들고, 대안학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에 오기도 어렵다. 중국어를 소화하는 예배공동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온누리교

회에는 중국어예배가 있고, 남양주온누리교회의 경우에는 탈북민 예배공동체와 중국어예배가 같은 시간 바로 옆 자리에서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데려올 수 있다. 앞으로 한누리사역은 단순히 탈북민의 정착과 복음화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중국과 연계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책 〈1만 킬로미터〉의 저자 이지성 작가는 탈북민들을 가리켜 ‘미리 온 인류평화’라고 일컬으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대받는 자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현재 중국에 있는 연약하고 천대받는 탈북민들을 통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않고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불법 인신매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중국내 핍박받는 소수민족들의 인권도 향상되며, 중국의 자유와 인권문제가 급물살

을 타게 되어 세계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탈북민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것은 통일과 인류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거라 주장한다. 생각해보면 통일 이후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교회는 단순히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처럼 교육과 의료, 복지 등 낙후된 사회기반 전체를 일으키는 재건사역을 동시에 해야 한다. 따라서 온누리교회처럼 사역과 인력 동원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절실하다. 앞으로 한누리사역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통일선교본부로 발전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거창한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탈북민들을 품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일의 그날이 자연스레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일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일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일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

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

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

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

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

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

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가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선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6-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TP 42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0월 2일~27일 (4주간)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

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홈페이지 신

청서

마감: 8월 25일(금)

문의: 031-331-8180, 8213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정

기구독 상담원 1명, 해외저작권 업무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

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계)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일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 음 세 대 에 대 한 경 고 의 메 시 지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6월 11일(일) 오후 3시 20분 방송

* 풍당, 유튜브, TV 동시 공개



당신의 자녀가 이런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도 절대 안전할 수 없는 다음 세대 성교육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 |



앱 업로드